

# ‘재난인문학’의 실천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 \*\*

- 치유론을 중심으로 -

박승현\*\*\*

## 목 차

1. 왜 ‘치유’를 말하는가?
2. 실천학으로서의 ‘재난인문학’
3. 재난인문학의 실천 방법론
4. 나가는 말 - 계속되어야 할 질문들

### 〈국문초록〉

‘재난인문학’이란 개념은 우리 학계에서 아직 생소한 용어이지만, 재난에 대한 과학 기술적,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대응의 방안을 찾아가려는 목적에서 문학, 역사, 철학 등 학제간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학술적 활동이라고 일차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재난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일상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심각한 사고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삶의 터전인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재난이란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9888).

\*\* 본 논문은 2020년 12월 18일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제5회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치유론의 관점에서 본 재난인식- 재난인문학의 실천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이란 제목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제목도 익명의 심사자의 제언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HK연구교수

부분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방지하지 않는다. 언제나 직면한 사태에 대한 의미 분석을 위한 새로운 물음과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해 가려고 한다. 재난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사회적 극복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보다 나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인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재난극복과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난인문학은 실천인문학이다. 치유는 재난을 경험하고 마주한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치유를 말하는 ‘인문학’은 단지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식 탐구로서 분류된 학문적 영역에 머무는 인문학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자기완성’과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실천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재난극복의 의지 발현을 위한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재난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의 원리로 ‘반물화(反物化)’의 원칙과 ‘관점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하여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난이란 불행을 낳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비판적 사유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이상의 제시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재난인문학, 실천인문학, 인간의 존엄성, 치유, 인간의 의지, 실천, 자기완성

## 1. 왜 ‘치유’를 말하는가?

‘재난인문학’이란 개념은 우리 학계에서 아직 생소한 용어이지만,<sup>1)</sup> 재난

에 대한 과학 기술적,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대응의 방안을 찾아가려는 목적에서 문학, 역사, 철학 등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학술적 활동이라고 일차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재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나타난 재난의 역사적 기록을 검토하여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배태한 세계관 등 재난 인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사’란 단편적으로 기술된 역사적 사실들을 일관된 구조로 체계화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서사’라는 것은 어떤 재해 사건에 대한 개인적·단편적 기억을 공공의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하여 구축하는 작업을 말한다.<sup>2)</sup> 예를 들어, 6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지금까지도 사건 발생 원인과 처리 과정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볼 때, 올바른 ‘재난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피부로 절감하게 된다. 사건의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체계화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낳게 할 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극복의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도 달라짐을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재난인문학’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기억과 서사의 작업과 진행함과 동시에 재난극복을 위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재난이란 비극적 사태 속에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재난극복에 관한 논의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재난 예방에 관한 논의로 진전된다. 우리 주변

1) ‘재난인문학’이란 용어는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학국플러스(HK+)사업에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 인문학의 정립”이란 아젠다로 선정되면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2) 백지운, 『재난서사에 대응하기-쓰촨 대지진 이후 중국영화의 재난서사』, 『중국현대문학』 69, 2014, 221쪽 참조

에서 늘 접하게 되는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재난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일상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심각한 사고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난을 겪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는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형성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sup>3)</sup> 이러한 재난 사태 속에서 삶의 일상성을 다시 회복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무너져 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확보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삶의 터전인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재난이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방치하지 않는다. 언제나 직면한 사태에 대한 의미 분석을 위한 새로운 물음과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실의 고통을 극복해 가려고 한다. 재난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사회적인 극복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sup>4)</sup>

---

3) 재난이란 역경으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며, 심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 영향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등의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동등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등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라도 모든 사람에게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미약한 스트레스에도 병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재난과 정신건강』, 학지사, 2015, 168 참조)

4)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간에 발생한 재난의 복구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는 자본가와 정치가들의 술수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또 다른 이차적 재난의 상황에 내몰려 자신의 기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더 열악한 조건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흔하다. 존.C. 머티는 “점점 더 커져 가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이는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거대한 도전 과제이다. 재난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를 제거하는 것을 부정의를 바로 잡는 일일 뿐 아니라 멀어져 가는 우리를 서로를 좀 더 가까이 끌어 당겨 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

보다 나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인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재난극복과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에 근거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이상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미래의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5)</sup> 공자가 “인간다움의 실현이라는 것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그러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인간다움의 실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sup>6)</sup>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간 자신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이상적 가치실현을 위한 의지를 스스로 발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상가치도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7)</sup>

---

한다. (『재난 불평등』, 동녘, 273쪽) 또한 나오미 클라인은 정치가들이 큰 재난이나 위기를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가들의 의도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통치 방식을 ‘쇼크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쇼크독트린은 공포를 이해해 정치가, 관료, 자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때 선택되는 상황이 주로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을 그녀는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라고 명한다. (나오미 클라인, 『쇼크 독트린』, 김소희 옮김, 살림Biz, 2008 참조) 이처럼 ‘재난자본주의’의 술책에 휘말리지 않고,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극복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재난극복을 인간의 의지에 호소한다고 하여 문제 해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건전하고 좋은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에 맞추게 되면, 보다 좋은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은 사회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극복의 의지를 발휘함과 동시에, 그 고통을 공감하고, 사회 구성원이 연대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는 사회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論語』, 「述而」,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 7) 공자는 “사람의 이상가치인 사람다움(인仁)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것

치유는 재난을 경험하고 마주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치유를 말하는 ‘인문학’은 단지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식 탐구로서 분류된 학문적 영역에 머무는 인문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기완성’과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실천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재난극복의 의지 발현을 위한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인간이 삶의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체계에서 벗어나 더 새롭고, 고차원적 방향으로의 삶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간이 의지를 발현하는 그 지점에서 치유의 단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통해 어떻게 삶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개입이 가능한 것인가? 인간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극복의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난이란 비극적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바로 치유의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면한 비극적 사태에서 함몰하여 모든 감정을 소모하고 있으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극적 사태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장자』에서 한 예를 들어 보면, 장자는 부인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를 남겼다. 한 인간의 죽음이란 비극적 상황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자는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난 비정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자는 “이 사람이 처음 죽었을 적에 나인들 어찌 홀로 개탄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의 시초를 생각해 보니, 원래 생명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네.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래 어떤 형체라는 것도 없었다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황홀한 세계에 있다가, 뒤섞이어 변화하게 되면서, 하나의 기氣가 있게 되고, 그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있게 되고,

---

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미암겠는가?”(『論語』, 『顏淵』, “爲仁由己而由人乎哉”)라고 말하면서, 주체적 실천이 있을 때만이 이상적 가치가 실현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 형체가 변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있게 되었다가, 이제 또 다시 죽음으로 (인하여 그 근원의 상태로 돌아) 갔으니,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갈마들어 사시四時가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이제 내 아내는 드러눕듯이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내가 (그 삶의 큰 이치도 모르는 듯이) 끼이끼이 소리 내어 따라 통곡하게 되면, 나 자신이 천명(天命)에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만 두었다네.”<sup>8)</sup>라고 자신이 부인의 죽음 앞에서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sup>9)</sup>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을 무분별하게 개입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그 문제 상황을 냉정하게 시작에서 끝까지 분명하게 통찰하고,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사태 속으로 빠져들어 가서, 감정이입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사유체계에 묶여서 직면한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직면한 재난이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재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은 먼저 돌아보아야 하고, 또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서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고, 기존의 잘못된 사유체계나 신념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장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란 비극적 사태에 직면하여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개입하여 개탄하여 마지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생

8) 『莊子 至樂』, 莊子妻死, 惠子弔之, 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 惠子曰:『與人居, 長者老, 身死, 不哭, 亦足矣, 又鼓盆而歌, 不亦甚乎!』莊子曰:『不然. 是其始死也, 我獨何能无慨然! 察其始而本无生, 非徒无生也而本无形, 非徒无形也而本无氣. 雜乎芒芴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人且偃然寢於巨室, 而我嗷嗷然隨而哭之, 自以爲不通乎命, 故止也.』

9) 장자가 제시한 죽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비록 개인적인 죽음의 문제를 다룬 것이지만, 치유를 위한 관점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집단적 재난의 문제로 확대하여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하여, 그 비극적 사태에 대하여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유 전환을 통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 삶을 관조할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 비극적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금 자신의 진정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장자가 관점의 전환과 가치전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의 주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는 불합리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 사태의 극복, 즉 치유의 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간에 재난에 직면하여 보다 이상적 방향으로 관점의 전환과 가치관의 전도가 바로 재난 극복과 치유를 위한 ‘일차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재난에 대하여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난이란 불행을 낳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비판적 사유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이상<sup>11)</sup>의 제시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

10) ‘일차적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재난의 극복은 ‘의지의 발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의 일차적 발현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 방법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의 극복과 치유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선결되어야 한다. 만약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동시에 인문학적 토대에 기초한 이러한 일차적 물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 재난은 개인뿐 아니라 일부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또 다른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과 제앙을 야기하는 이차적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나옴이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과 존.C.머터의 『재난불평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1) ‘이상理想’을 말하게 되면, 흔히 아직 실현되지 않는 시간적 미래의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 만약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이나, 부정직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도 이상이고, 가치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진정한 의미는 ‘도덕적 마음’에 근거하여야 한다. 도덕적 마음은 이상을 발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인 것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합리·불합리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단은 바로 ‘도덕적 마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도덕적 마음이 수시로 작동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결점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기점이고 표준이



을 것이다.

## 2. 실천학으로서의 '재난인문학'

### 2.1. '인문과학'과 '실천인문학'의 구분

재난인문학이 재난을 낳는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과 재난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제적인 작동을 일으켜야 한다. 비정상적 상태에서 이른바 정상의 상태로 옮겨가려는 실제적인 노력과 활동을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학문의 성격에 따라 이른바 '실천'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을 치료하거나, 수학자가 수리적 계산을 해내는 것과 같은 것도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학 지식에 근거한 실천으로 '기술적 실천'이라고 부른다. 범위를 인간에 한정하여 말하면,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파악한 것이며, 자연적 생명 유지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객관적인 사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가치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이나 도덕적 의미와 활동은 제외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 즉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과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주체적 자아 확립을 주된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실천'이라고 부른다.<sup>12)</sup>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의 이상적 가치와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理想'의 원의는 옳고 그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도덕적 마음'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것이 만약 가치를 갖거나 이상적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원래 의미의 이상에 근거하여야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진정한 이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牟宗三, 『道德的理想主義』, 대만, 학생서국, 1985, 13쪽 참조)

12) 牟宗三, 『牟宗三先生講演錄. 壹 先秦儒學大義/『周易』大義』, 財團法人東方人文學術研究基金會, 2019, 14쪽, 38쪽 참조.

열리게 된다.<sup>13)</sup> 이처럼 기술적 실천과 도덕적 실천이란 이 양자 사이에는 실천의 대상과 방법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인문학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실천의 대상과 방법론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인문학의 함의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란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sup>14)</sup>

대체로 인문학을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란 용어로 대체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문과학’이란 용어로 대치되고, 학술적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의 탐구와 확장을 중시하는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에서 재난이란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를 논하는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인문과학으로서의 학문적 활동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중시한다. 그것의 활동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지적인 탐구이고, 지식의 발견과 확장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른바 ‘실천적’이란 수식어가 붙은 ‘실천

13) ‘도덕’이란 수식어가 붙게 되면 마치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듯하고, 형식적 규범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우리의 의지의 발현을 통하여 이상적 자아의 실현, 다시 말해 자기완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은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실천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의 발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한 가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14) 대학 내에서는 인문학과 관련된 과목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현실에 반하여, ‘길위의 인문학’, ‘부의 인문학’, ‘비즈니스 인문학’ 등등 “00인문학”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넘쳐나고 있고,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문학 강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묻게 되면, 쉽게 대답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전략으로 기획된 출판과 인문학 강좌가 도리어 인문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인문학 그 자체의 위기라고 하기 보다는 인문학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망각하고, 상업적 전략에 힘입어 손을 든 인문학자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은 ‘주체성’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추구되어지는 삶의 실천 원리  
 로써 ‘구체적 보편성’을 중심적 위치에 놓게 된다. 양자 사이에는 학문적 목  
 적과 대상에서 분명한 개념적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문학’이란 말은 고전적 의미의 인문학이 아니  
 라, 근대적 의미의 인문학을 가리키고 있다. 근대 인문학은 근대 자연과학  
 의 출현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학문이라는 점에서 고대 인문학과 다르다.<sup>15)</sup>  
 철학을 포함한 근대 인문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다른 여  
 타 개별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학’이 되어 버렸다.<sup>16)</sup>

근대 인문학이 ‘과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인문학이  
 과학의 방법론을 따르는 것으로 의미 전환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문학은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형성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여타 과학처럼 인간이 남긴  
 여러 표현들(사상, 종교, 역사, 역술, 문학 등)을 대상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할 인격 형성을 위  
 한 ‘자기수양’과 ‘교화敎化’의 내용이 빠져 버리게 된다. 보다 성숙한 인격  
 형성을 위한 ‘가르침과 배움’, 교화의 행위 그 자체이던 인문학이 과학의 방  
 법론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학문적 활동이 대상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지적  
 활동으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확장하는 행위가 되었음을 뜻하게 된다.  
 이때의 지식은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정보로 전환되어지고, 많은 새로운 정

15) 강영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소나무, 1987, 5쪽.

16) 하이데거는 근대 학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을 학문 이념의 관점에서  
 규정하려는 것은 근대의 특징적인 경향이고, 분명히 그것은 수학으로 나타난다. 근대  
 철학에 철학을 학문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반대로 고대 철학에는 학문들을  
 철학들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입문』, 이기상, 김재철 옮  
 김, 까치, 2006, 30~31쪽 참조)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이른바 과학으로 이해도 무방할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객관 세계의 원리를 기술하고 설명해  
 내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의 말에 비추어 보면, 근대 학문의 특징은 바로 과학화라  
 고 할 수 있겠다. 근대 이후로 과학의 관점에서 엄밀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인문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다고 할 수 있다.

보를 축적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문학의 목적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인격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이 ‘과학성’을 학문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문학은 더 이상 인문학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학문적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이 직면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인문학이 본령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갔다고 하여 과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는 실천적 인문학과 과학성을 중시하는 인문학, 즉 인문과학은 학문의 대상과 목적이 다름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과학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객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떠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지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위 환경과 발생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직면하고 있는 외물外物(external object)과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외물은 객체이고, 대상이다. 인간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대상과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 이성적 사유의 추론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바로 지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과학성을 동반한 인문학의 목적은 바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객관적 대상에 대하여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자연현상의 원리를 파악하여 인간의 이성적 통제 하에 두고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

17) 강영안, 위의 책, 서문과 플롤로그 「인문학 위기,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참조.

(Knowledge is power)”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객관적 자연 세계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비로소 자연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면, 우선 자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자연을 인간의 이성적 사유의 범위로 이끌고 들어와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sup>18)</sup>

대상을 이해하고, 또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이해하게 되면 지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대상은 자연현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생존을 위한 각종 사회현상도 하나의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도 인간 지적 활동의 유산인 문학, 역사학, 철학을 포괄하고 있고, 그러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근대 학문을 ‘과학성’의 이념을 따르고, 객관적 지식탐구의 영역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인문학도 하나의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되어 인문과학으로 이해된다. 인문학이 과학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반해서 구체적 삶과 인격과는 점점 거리가 생겼고 ‘인간성’ 형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퇴색되고 말았다. 구체적 현장에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인간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이 학자의 임무가 되었다.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묻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자들이 막상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 내적인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sup>19)</sup>

실천인문학은 과학이 객관대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의 추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객관대상에 머무는 것을 되돌려 자기로 돌

18) 牟宗三, 『人文思想與教育』, 『時代與感受續編』, 牟宗三先生全集24, 349쪽.

19) 강영안, 위의 책, 23쪽.

아와야 하고, 개체의 주체로 돌아와야 한다. 대상은 객체이다. 학문적 활동을 대상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부터 철회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학문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삼는 것이다. 인문학은 바로 주체성 안에서 작용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실천) 인문학이 주체성 안에서 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지, 인간을 대상화하여 어떤 심리현상이나 생리현상,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을 이러한 현상에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을 대상화하는 것이고, 객체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이 지점에 인문학의 착안점을 둘 때,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그러므로 실천적 인문학은 결코 과학적 학문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인문학을 인문과학으로 환원하려는 것은 모든 학문을 과학적 방법론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과학일원론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문학과 인문과학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sup>21)</sup>

그래서 실천적 인문학은 과학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의미의 학문관과 거리가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은 인격 형성과 인격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동양의 고전인 사서四書중의 하나인 『大學』에서 “大學의 道는 밝

20) 牟宗三, 『人文思想與教育』, 『時代與感受續編』, 모중삼선생전집24, 349쪽.

21) 정신과학은 그 대상의 여러 현상들이 자연과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 법칙에 비추어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문화적 규범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에 따라 사회과학과 인문학으로 구분된다. 사회과학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문학은 문학, 역사학, 철학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결코 과학이 아니다. 인문학도 일종의 앎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문과학이라는 개념은 자기 모순적이다. 인문학에는 그냥 인문학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 객관성을 바로 앎이 지향하는 바이고, 자연과학적 앎이 가장 객관적인 앎이라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앎이 모든 앎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앎이 자연과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박이문, 『더불어사는 인간과 자연』, 미다스북스, 2001, 40쪽)

은 덕(明德)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으며, 지극한 선(至善)에 머무르게 함에 있다”<sup>22)</sup>라고 학문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은 인간의 본성을 반성적 사유활동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을 밝히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도덕 실천의 원동력이고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목적은 도덕 실천의 근원을 밝혀내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근거를 밝힘과 동시에 학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도덕 실천의 전체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학문의 목적을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에 두고 있으며, 학문의 대상을 바로 우리의 밝은 덕인 인성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학문이 객관 세계의 지식을 획득하여 자연을 이성의 통제하려는 목적과 확연히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sup>23)</sup>

전통적 의미의 인문학은 한 마디로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인문학, 인문과학은 이러한 교학의 정신, 배움과 가르침의 성격과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유용성과 같은 외적 유용성은 물론이요, 인문학 고유의 내재적 가치, 즉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sup>24)</sup>

## 2.2. 실천인문학과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

인문학이 실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현실의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 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길’, 즉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개념’이 아니고, 도덕의 영역에서

22) 『大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23) 牟宗三, 『簡論哲學與科學』, 『牟宗三先生晚期文集』, 모종삼선생전집27, 11쪽 참조.

24) 강영안, 위의 책, 19쪽.

인간이 의지를 발현하여 인간다운 행위를 실천함에 의하여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존재하게 되는 ‘가치 개념’인 것이다.<sup>25)</sup> 자연세계의 생명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존귀하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시간의 장단, 생존 능력의 유무 등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살아가는 생명이란 자연 사실적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에 비해 인간의 생명이 더 존귀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한번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며, 인간에게 유해(有害) 불유해(不有害)를 떠나서 생명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 모두 소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판단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 지점일 것이다. 도덕적 능력이란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떠한 형식적 규범에 복종하거나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양심의 발동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옳은 방향으로 의지를 발현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지점에서 인간이 가치적으로 동물과 구별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25) 예를 들어, 인간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개개인의 주권이 존중받는 이상적 사회는 특정한 한 인물의 힘이나 외부의 특정한 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현의 의지를 발현하고 노력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간의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깨어 있는 의식을 놓아 버리고, 보다 이성적 방향으로 가치 실현할 의지를 발현하지 않고, 이른바 개인적 사욕과 집단적 이기심에 사로 잡혀 행동하게 되면, 그 사회는 곧 바로 타락과 혼란으로 접어들게 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후 추구해야만 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국가로 교육받고, 반강제적으로 따르기를 강요받았던 서구 사회, 특히 미국 사회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재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적극적 대처, 깨어 있는 시민의식의 자발적 발현이 재난극복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바라는 이상사회는 인간이 의지를 발현하여 실현할 때만이 존재하게 되는 가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맹자도 “인간이 짐승에 비하여 더 낫다고 판단할 근거는 거의 없다. 다만 차이가 난다면 도덕적인 자질을 잘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에서 구별된다.”<sup>26)</sup>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실천은 인간의 당위의 영역이고,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지, 객관적 자연을 탐구하고 설명하려는 자연사실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도덕적 영역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앎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 사실을 인간의 이론이성의 탐구를 통하여 획득되는 진리인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도덕이성의 주체적 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올바른 앎인 지혜에 해당한다.<sup>27)</sup>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에만 신뢰를 보내는 학문적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자연에 대한 탐구의 방식으로 인간의 가치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표현되는 학문이 바로 반성적 학문, 즉 ‘생명의 학문’인 것이다. 수학과 물리학 등과 같은 학문은 경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지식에 해당한다. 지식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것은 객관경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sup>28)</sup>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존엄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전적 의미로 존엄은 존귀하고 위엄을 갖추고 있어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

26) 『孟子』, 『離婁下』,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미미하다. (다만 인간의 천성 안에 仁義와 같은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인) 서인들은 그것을 쉽게 버리지만, (인간의 이상성 실현을 추구하는) 군자는 잘 보존한다.”라는 말에서 맹자는 도덕적 실천의 유무에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가치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7) 칸트의 구분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그 적용 범위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이론이성은 객관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고, 도덕이성은 인간의 선을 실현할 의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28) 박승현, 「‘재난인문학 정립’을 위한 인문학의 함의와 역할에 대한 분석」, 『인문학연구』 제5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20, 75쪽.

며, 최고의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어떤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출발점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을 자각하는 것, 즉 인격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함’(當爲)이 있고, 인생에는 추구하는 이상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 그는 한 단계 위로 자신의 가치를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타자(여기에는 자연도 포함)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존재가치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부단한 분투奮鬪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답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분투하는 그 지점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도덕의 진정한 가치도 바로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그 지점, 즉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그 지점에서 실현되는 것이다.<sup>29)</sup>

그래서 공자도 “자신을 이겨서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다<sup>30)</sup>”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극기克己’, 즉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이기적 사욕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방기하거나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감성적 욕망을 이성의 통제 하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감성이 우리의 이성

29) 예를 들어,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간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서 공존을 고민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지점에서 인간이 기타 동물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論語』, 「顏淵」, “克己復禮爲仁”

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역으로 이성이 우리의 감성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이 작동하는 것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례復禮’, 즉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회적 규범이나 정치적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는 인간이면 마땅히 실현해야 할 덕목이고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극기가 자기 인생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사욕과 자기 중심적 사유를 제거하는 것이라 한다면, ‘복례’는 긍정적 측면에서 인생의 이상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실현하려는 것을 말한다.<sup>31)</sup> 공자가 주장하는 ‘극기복례’는 부단한 자기 극복과 실현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이상적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때 인간은 사실적인 존재인 동시에 가치적 존재로 승화된다.<sup>32)</sup>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인간의 도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주재함을 통하여 보다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격완성이란 인간이 삶의 이상적 방향성을 묻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인간답다’는 것은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규정된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 수행을 거쳐서 체현된 존재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늘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참다

31) 牟宗三, 『牟宗三先生講演錄·壹 先秦儒學大義/『周易』大義』, 財團法人東方人文學術研究基金會, 2019, 제3강 참조.

32) 실상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논의는 칸트에게 빚진 것이 많다. 그는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나, 목적의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소질을 바탕으로 선의지의 절대적, 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주체’로서 가지는 존엄성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강영안,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가: 칸트의 도덕 철학』, 조함공동체소나무, 2000, 106~107쪽 참조)

운 존재가치를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인간들은 의식주가 포함된 생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해결 되었다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런 인생에서는 인격의 존엄성을 수립할 수 없다. 인간은 분명 짐승보다는 더 나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을 넘어, 이른바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인간들의 도덕적 실천은 바로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33)</sup>

### 3. 재난인문학의 실천 방법론

재난인문학은 실천적 인문학이고, 실천인문학은 현실의 비극적 사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의지의 발현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의 이상적 가치의 실현,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란 것은 구체적 방법에 관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재난극복과 치유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인간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실천 방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up>34)</sup> 논자는 재난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의 원리로 ‘반물

33) 동물들에게서도 공존을 말할 수 있지만, 동물이 실현한 공존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본능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4) 왜냐하면 ‘방법론’과 ‘방법’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방법론’은 문제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방법론과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방법론은 방법, 방법들, 그리고 최선의 실천이 특별한 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밑받침을 제공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화反物化의 원칙'과 '관점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 3.1. 반물화反物化의 원칙

동양에서 '인문人文'이란 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주역』에서 '천문天文'과 상대해서 나온 것이다. 『주역』『분괘賁卦·단전象傳』에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교차하는 것이 천문이고, 문명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문이다. 천문을 관찰하여 시간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를 교화하여 이룬다”<sup>35)</sup>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천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사시의 변화, 즉 자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인문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다 이상적 방향으로 교화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화성人文化成', 즉 인문의 방법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인문학이 가진 자기반성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습이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관점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가치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인문학이 바로 현실의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는 시발점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인문'을 “문명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문이다”(文明以止, 人文也)라고 말하였다.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동양고전에선 자신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강조한다. 이것은 한 인

---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연구에서의 합리적인 방법에 관한 이론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방법론은 구체적 실천 방법이 따라야할 원리에 관한 논의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NAVER, 「위키백과」, '방법론' 참조)

35) 『周易』, 『賁卦·象傳』, “剛柔交錯, 天文也。文明以止, 人文也。觀乎天文, 以察時變。觀乎人文, 以化成天下” 여기서 '止'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야 할지를 아는 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논자는 대학의 '在止於至善'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간으로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만약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그러한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책임있는 존재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 역할과 관계성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을 고민하는 '인문화성(人文化成)'이란 말에서 '문화(文化)'란 말이 나온 것이다. 문화는 '물화(物化)'와 상대되는 말이다. 문화는 '문(文)'의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물화는 물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활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차적으로 문화의식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식이란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반물화(反物化)의 활동이다. 인문학이 현장에서 실천적 수행할 때 지켜야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 즉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나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물화'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가치 관념의 적극적 발현을 말하게 된다. 반물화의 원칙과 가치관념의 발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식이 침체하게 되면, 인간 사회는 인간성 상실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물건이나 수단으로 취급하는 물화(物化)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차원의 인간으로만 보게 되고, 가치적 측면에서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런 단계에서 자신만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인 인성(人性),

정의正義, 이상理想, 가치價値 등은 전부 부정당하게 되고 학문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sup>36)</sup>

따라서 실천 인문학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반물화反物化'의 활동과,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가치관념의 발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바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우선되어 지는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즉 인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 3.2. 관점의 전환 시도

앞에서 재난인문학을 한편으로는 재난이란 불행을 낳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비판적 사유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이상의 제시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바로 인문학의 본령과 관계된 것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이 지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의 문제 극복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철학적 물음, 질문이 없는 곳에는 살아있는 철학적 활동이 존재할 수 없다. 철학의 연구가 철학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할 때 진정한 철학적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인문학도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7)</sup>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36) 牟宗三, 『人文主義的基本精神』, 『道德的理想主義』, 대만 학생서국, 1985, 151쪽.

37)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하고, '위험(리스크)'이라

생태계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늘 우리를 압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지난 3세기 동안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산업화의 결과이고, 이러한 산업화는 서구적 합리성의 산물인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근저에는 자연정복, 달리 말하면 자연 파괴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존의 삶의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즉각적인 원인이 산업화 또는 과학 기술이나 서구적 합리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 바로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장자의 유명한 고사가 있다. “남해의 제왕은 숙이요, 북해의 제왕은 홀이요,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다. 숙과 홀이 때때로 서로 함께 혼돈의 땅에서 만나거늘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였다. 숙과 홀이 혼돈의 은덕을 갚을 방법을 의논하여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거늘 이분만이 없으니 시험 삼아 뚫어보리라.’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으니 이레 되는 날에 혼돈이 죽었다.”<sup>39)</sup> 여기서 ‘혼돈’은 바로 혼연일체混然一體의 자연을 가리킨다. 서양 근대를 거치면서 자연을 인간 이성의 대상, 즉 타자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이성적 통제의 대상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 자연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과학적 관리 대상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장자의 ‘혼돈의 죽음’은 바로 근대적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따라서 장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인

는 개념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재난의 위험이 가진 역설적 특징을 포착해낸 바 있다. (올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9, 홍성태 옮김, 새물결, 2014 참조)

38) 박이문, 『이성의 시련』, 문학과 지성사, 2001, 267쪽.

39) 『장자』 『응제왕』, “南海之帝爲儵,北海之帝爲忽,中央之帝爲混沌. 儵與忽時相與遇於混沌之地,混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混沌之德,曰:‘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此獨無有,嘗試鑿之.’日鑿一竅,七日而混沌死.” 위의 해석은 『장자』(이강수, 이권 역, 길, 2005)을 참조함.



간의 방만한 행태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하고, 제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해 왔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고안되었던 자연정복을 바탕으로 한 기술문명의 발전은 그 과도한 성공의 결과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전 생태계에 가장 큰 도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침략에 대한 자연의 역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근대 이후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류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은 이제 종말을 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기후 변화 등 자연이 앓고 있는 몸살은 우리 인간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이 지구가 앓는 몸살의 강도가 클수록 인간이 격게 되는 재난의 강도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언제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난’이 될지 모를 위기의 상태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미래 생존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존의 삶의 패러다임과 세계관 변화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세계관과 삶의 태도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류뿐 아니라 전 지구적 미래는 어둡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가치관의 전환은 일상적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유와 행동의 자동적 전환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 자신의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대하지 않다”<sup>40)</sup>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지지知止’, 즉 ‘멈춤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족知足’, 즉 ‘만족함을 아는 것’이다. ‘멈춤을 아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른 부분,

40) 『老子道德經』 44장, “知足不辱, 知止不殆”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있는 의식이 작동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우선될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재능(세속적인 명예)을 표방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공명(功名)을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진귀한 재화를 중시하지 않으니, 백성이 도둑이 되지 않게 되고, 탐낼만한 사물을 드러내지 않으니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는다.”<sup>41)</sup>라고 말한다. 세속적인 명예, 끊임없는 부의 축적, 무한한 감각적 욕망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일도 있다. 또한, 세속적인 작은 이익과 쾌락에 빠져 ‘깨어있는 의식’, 즉 이성적 반성 작용이 멈추게 되면, 진정으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실한 척’하는 허위의식이 발동하게 되어, 작은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중국에 가서는 자기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삶의 허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을 해치는 감각적 충동 작용에 빠져들어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 ‘멈춤을 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노자는 “(마음속에) 질박함을 가지고 사욕을 줄여야 한다”<sup>42)</sup>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함을 이는 ‘지족知足’은 ‘자기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현 상태를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수양은 바로 자기 긍정의 과정이고, 또한 참다운 자아, 즉 진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이란 말을 덧붙이는 것은 ‘거짓’의 자아에서 벗어나고 진실한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가 확립되어야 ‘깨어있는 의식’이 언제나 작동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

41) 『老子道德經』 3장, “不尚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42) 『老子道德經』 19장, “見素抱樸, 少私寡欲”

다. 바로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멈춤이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의 용기를 발휘할 때,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 4. 나가는 말 - 계속되어야 할 질문들

삶은 재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크든 작든 재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있어 왔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건전한 방향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재난인문학은 실천적 인문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실천인문학은 바로 질문함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반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문학적 실천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가져오기 위한 가치전환을 위한 일차적 작업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올바른 질문 속에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실천은 바로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책임있는 한 존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그 질문을 멈출 수 가 없는 것이다.

재난인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의 대상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낳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역시 재난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인간의 고통을 낳게 하고 있다. 신자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겨 부를 창출 하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패배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구조이다. 그리고 부단히 유행을 창출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산업구조를 확장시키고, 인간들은 그 구조 속의 부품으로 전략하게 만들어 간다. 끊임없이 경쟁만 부추기는 성과지향주의 사회,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소모되어야 하는

개인은 우울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sup>43)</sup>

또한,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우리의 지향해 왔던 기존의 가치 관념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이후 인간의 삶은 진보와 발전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며, 팽창의 역사 속에 살아왔다고 할 것이다. 인간은 과학혁명과 기술 발달에 기반하여 진보와 발전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인간 중심적 관점에 기초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양적인 면에서 물질적 팽창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살아왔다.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인간 삶의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이 누리는 풍요와 행복감에 비례해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지구가 인간들의 기만적 술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조짐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접하면 우리는 근대 이후로 지향해왔던 양적인 면에서의 팽창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진보인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추구를 부추기며 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발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치유론은 재난의 극복에 관한 논의이다. 재난은 인간의 일반적 바람과 어

---

43) 논자가 자본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여,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념이 힘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의 폐해를 공통으로 겪고 있는 중이다. 칼 폴라니는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이고, 그런 제도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사회를 이루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고,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길, 2018, 94쪽 참조)

극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서 언제나 재난의 상황과 마주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바람과는 배치背馳되는 이러한 재난은 참담함과 절망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재난상황을 새롭게 인식함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재난의 상황에 대하여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행을 낳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다시금 점검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올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14.
- \_\_\_\_\_, 『글러벌 위험사회』, 박미애, 이진우 옮김, 길, 2010.
- H.요나스, 『책임의 원칙: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이진우 옮김, 서광사, 2017.
- \_\_\_\_\_, 『기술 의학 윤리』, 이유태 옮김, 솔, 2005.
- 니콜라스 시라디, 『운명의 날 - 유럽의 근대화를 꽃피운 1755년 리스본 대지진』, 강경이 옮김, 에코의 서재, 2009.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길, 2018.
- 나오미 클라인, 『쇼크 독트린』, 김소희 옮김, 살림Biz, 2008.
- \_\_\_\_\_,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016.
- 존C. 머터, 『재난 불평등』, 장상미 옮김, 동녘, 2016.
- 아이리스 메이언 영,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 외 옮김, 이화여대출판사, 2018.
-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페타그램, 2017.
- 강영안,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인문학의 철학을 위하여』, 소나무, 2002.
- 牟宗三, 『道德的理想主義』, 대만학생서국, 1985.
- \_\_\_\_\_, 『簡論哲學與科學』, 『牟宗三先生晚期文集』(牟宗三先生全集27), 연경출판사, 2003.
- \_\_\_\_\_, 『時代與感受續編』(牟宗三先生全集24), 연경출판사, 2003.
- \_\_\_\_\_, 『중국철학19강』,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 박이문, 『더불어 사는 인간과 자연』, 미다스북스, 2001.
- \_\_\_\_\_, 『통합의 인문학-동지 철학을 위하여』, 지와 사랑, 2009.
- \_\_\_\_\_, 『이성의 시련』, 문학과 지성사, 2001.
-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72, 문화과학사, 2012.
- 이종찬, 『재난, 그리고 절규의 공동체』, 『문화과학』 79, 문화과학사, 2014.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ractical Methodology  
of Disaster Humanities  
- Focusing on Healing Theory -

Park, Seung-hyun\*

The concept of ‘disaster humanities’ is unfamiliar to our academic community, but it can be defined as an academic activity that attempts to interpret, understand and respond to disasters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beyond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here are various kinds of disasters, bu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once such a disaster occurs, it is a serious event that inevitably breaks down the daily life of our lives and drastically changes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s long as humans exist on this land, where we live, we cannot help but face a new day, so even in the desperate situation of disaster, we cannot but say new hope to lead their lives.

Most humans do not neglect their misfortunes. People always try to redefine the direction of life and overcome the pain of reality by changing their perspectives and question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situation they face. There are various ways to overcome disasters, but the results will vary depending on in what direction and how we exercise our personal and social will to overcome them.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with a better sense of purpose can only come from humans. It would be a fact that only humans can determine the fate of the entire planet, including humanity. So it is in human hands to overcome the disasters that are causing the current global crisis and to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life, and it is bound to appeal to human will.

Disaster humanities are practical humanities. Healing is what happens

---

\* Chosun University

at the scene of a specific life experienced by a disaster. Therefore, "humanities," which refers to healing, play a role as "practical learning" to solve the pain faced by humans, beyond just the academic realm of exploring theories. Rather than humanities that remain in academic areas classified as objective knowledge exploration such a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in universities, "practical humanities" that display "self-completion" and "sympathy" in the field of concrete life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direction. As the principles of practical methods for overcoming disasters, the "principle of anti-materialization" and "transition of perspective" may be presented.

Therefore, attempting a humanistic approach to disaster is to proceed with critical thinking about the absurdity of the reality that caused the unhappiness of disaster, on the other hand, to overcome the pain of reality, and to present a new direction and ideal of human life. It can be understood as a work to secure dignity.

Key Words : Disaster Humanities, Practical Humanities, Human Dignity, Healing, Human Will, practice, Self-completion

<필자소개>

이름 : 박승현

소속 :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전자우편 : psh310@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1년 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23일